

저출생고령화시대, 성평등환경을 논하다 : 기획시리즈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노 경 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 서론
2.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과 역할 분담
3. 가족 내 노인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4.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적 과제

「이슈분석」 제249호(23-01)

[저출생고령화시대, 성평등환경을 논하다 기획시리즈]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발 행 인 정 정 옥

발 행 일 2023년 1월 26일

발 행 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 쇄 디자인팀 031)236-3883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이슈분석」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00)

요 약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돌봄의 수요를 증가시킴. 경기도는 전국 고령인구의 26.4%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인돌봄과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논의가 요구됨.

○ 부모와 성인 자녀는 서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 그러나 돌봄을 포함한 부모에 대한 도움 제공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음. 동시에 부모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움도 점차 증가하게 됨. 기대여명의 증가는 가족 내 노부모 돌봄에 대한 이슈를 증가시키고 있음.

- 성인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세부 특성에 따라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경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을 가장 주되게 담당하는 사람은 중장년 여성이며, 미혼(비혼)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함.

○ 가족가치는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 가치관이 존재하며, 노인돌봄에 있어서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과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남.

-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경제적 부양자와 의사결정자로서의 남성과 가사와 돌봄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전통적 가족 규범의 변화와 성평등 의식 확산, 공적 돌봄 서비스의 시작 및 확대 등으로 노인돌봄에 있어 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그러나 노인돌봄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가족이 담당하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있으며, 노인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대안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차원의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 확충 뿐 아니라, 여전히 노인돌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내 돌봄 및 돌보는 사람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발굴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부모돌봄 제공자의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 돌봄 대상, 동거 여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노인돌봄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돌봄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함.

목 차

1. 서론 1

2.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과 역할 분담 5

가.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주고받기 5

나. 부부간 부모 돌봄 역할 분담 10

3. 가족 내 노인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12

4.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적 과제 16

1. 서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돌봄의 수요를 증가시킴. 노인돌봄의 탈가족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돌봄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18.0%, 경기도 14.7%임.
- 경기도는 울산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14% 이상의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

-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5.2%와 23.8%로 매우 높았으며, 이들 지역 뿐 아니라 전라북도(23.2%), 강원도(22.8%), 부산시(21.5%)도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임.

- 경기도는 전국 고령인구의 26.4%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인 4명 중 한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표 1] 고령인구 비율(2022년 12월 기준)

구분	전체인구(명)	65세이상인구(명)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비율(%)	전국 고령인구 대비 비율(%)
전국	51,439,038	9,267,290	18.0	100.0
서울특별시	9,428,372	1,658,207	17.6	18.3
부산광역시	3,317,812	712,412	21.5	6.4
대구광역시	2,363,691	435,698	18.4	4.6
인천광역시	2,967,314	463,850	15.6	5.8
광주광역시	1,431,050	222,970	15.6	2.8
대전광역시	1,446,072	232,663	16.1	2.8
울산광역시	1,110,663	163,812	14.7	2.2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40,219	10.5	0.7
경기도	13,589,432	1,992,807	14.7	26.4
강원도	1,536,498	349,874	22.8	3.0
충청북도	1,595,058	316,939	19.9	3.1
충청남도	2,123,037	436,895	20.6	4.1
전라북도	1,769,607	410,619	23.2	3.4
전라남도	1,817,697	457,481	25.2	3.5
경상북도	2,600,492	618,275	23.8	5.1
경상남도	3,280,493	638,801	19.5	6.4
제주특별자치도	678,159	115,768	17.1	1.3

자료 :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 고령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이제까지 가족원 돌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은 주로 영유아 등 미성년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최근 노인돌봄이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10년 이후 노인돌봄에 대한 연구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돌봄의 책임이 사회로 옮겨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은 노인돌봄의 주요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돌봄제공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현실은 큰 변화가 없음(안숙영, 2018).

- 가족돌봄자들은 노인돌봄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과 우울, 소진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문현아·차승은, 2020)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돌봄으로 인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문제 또한 논의되고 있는데, 빈곤한 사람이 주로 여성과 저소득층이라는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음(신영민·김희강, 2019).

○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 내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2020년 수행된 「가족실태조사」¹⁾²⁾와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³⁾ 결과를 분석하여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을 확인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1)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만 12세~25세, 만 25세 이상으로 나누어 문항을 달리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본 보고서는 만 25세 이상의 응답(연락 빈도, 도움 주고받기 등)만을 추출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부간 역할분담 및 성평등 의식 문항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2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2) 경기도만을 추출하여 분석할 경우 일부 문항들에서 응답수의 제약이 존재하여 전국단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음.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이고 노인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전국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음.

3) 「양성평등실태조사」의 경우 원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통계정보시스템 제공 자료를 활용하였음.

2.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과 역할 분담

“부모와 성인 자녀는 서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 그러나 돌봄을 포함한 부모에 대한 도움 제공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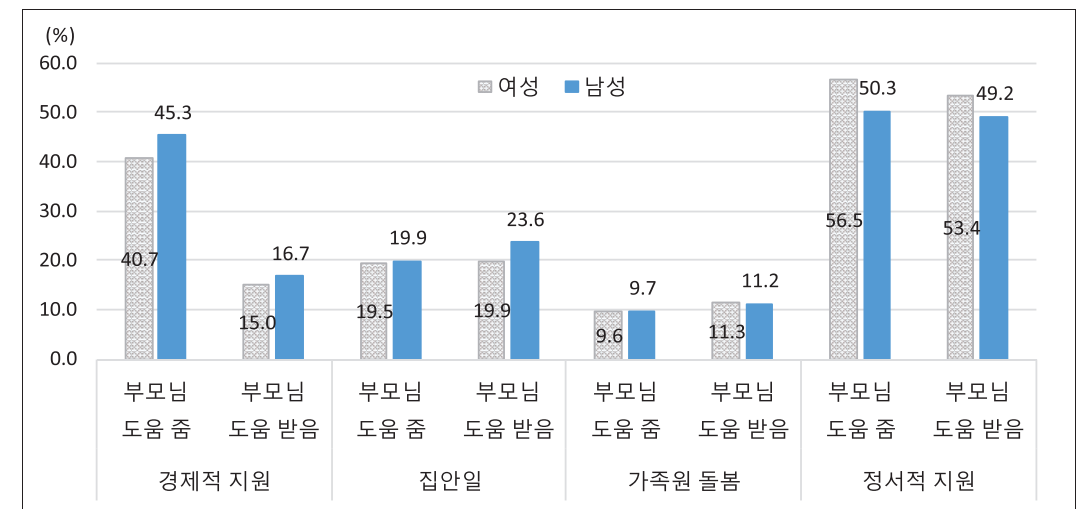
가.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주고받기

○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음. 동시에 부모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움도 점차 증가하게 됨. 기대여명의 증가는 가족 내 노부모 돌봄에 대한 이슈를 증가시키고 있음. 성인 자녀의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세부 특성에 따라 부모와 도움을 주고받는 경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영역별로 도움을 주고받는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지원과 집안일은 성인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부모에게 더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응답하였고, 가족원 돌봄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정서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부모와 더 많은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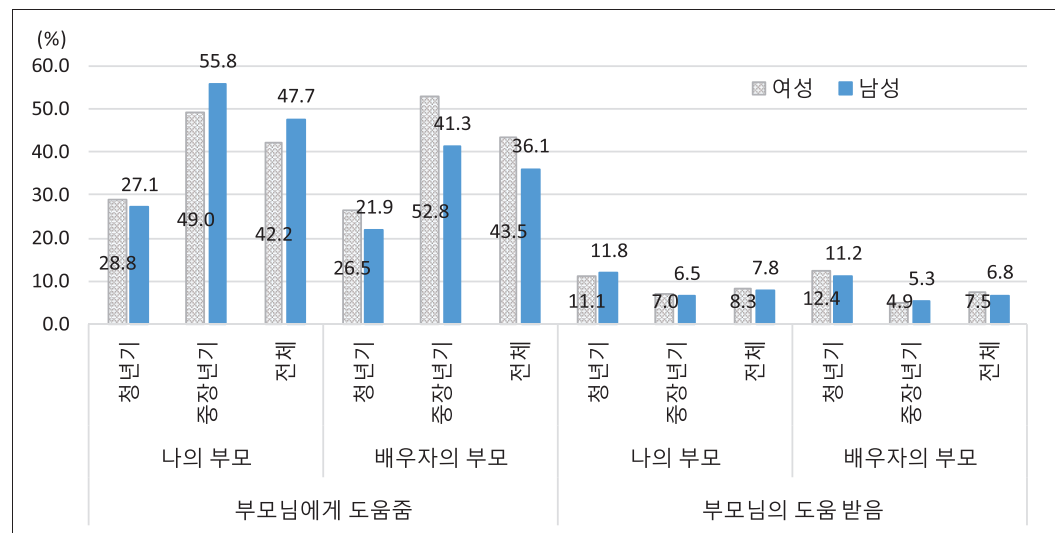
주 : 만 25세 이상만 응답. 해당없음 제외.

○ 그러나 혼인상태 및 생애주기에 따라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인 자녀가 영역별로 도움을 주고받는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으로 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적은 지원을 하지만, 중장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감소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은 늘어남.
- 노년기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있는 응답 사례수가 적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래프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음.

○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중장년기 남성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여성에 비해 더 많이 하고 있었으나,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음.

[그림 2]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경제적 지원(유배우자)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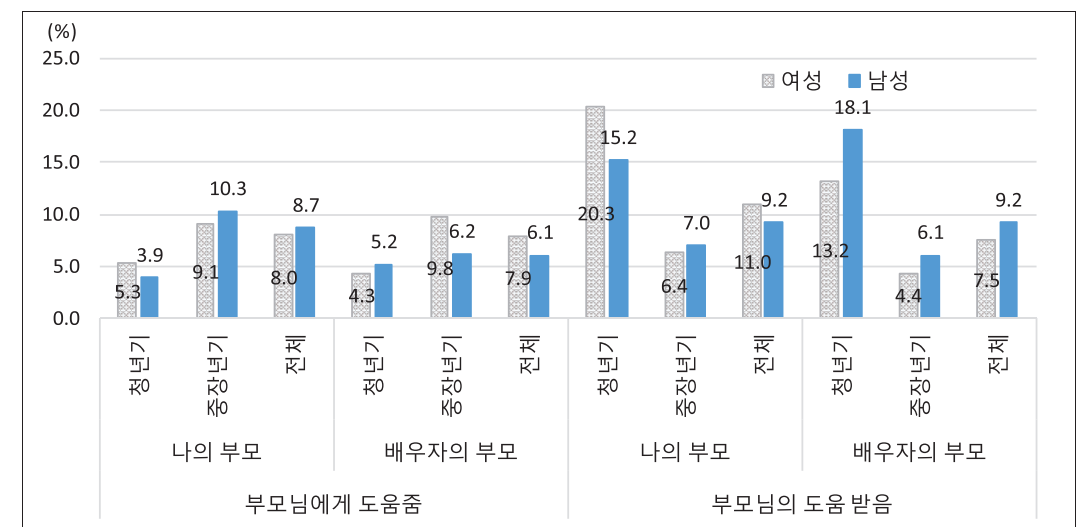
주 : 만 25세 이상만 응답. 해당없음 제외.

○ 가족원 돌봄은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들의 손자녀 양육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나의 부모로부터 가족원 돌봄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청년기 여성에게서 가장 높았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청년기 남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가족원 돌봄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중장년기에 더 높게 나타남.

- 중장년기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나의 부모에 대해 돌봄을 지원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봄을 지원한다는 응답이 더 많아 성별로 차이가 있었음.
- 남성들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도움에는 배우자의 역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생활시간 조사에서 기혼자의 가사활동 관련 시간은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들에게서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노경혜, 2020), 기혼인 남성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가사분담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가 담당하거나 보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그림 3]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가족원 돌봄(유배우자)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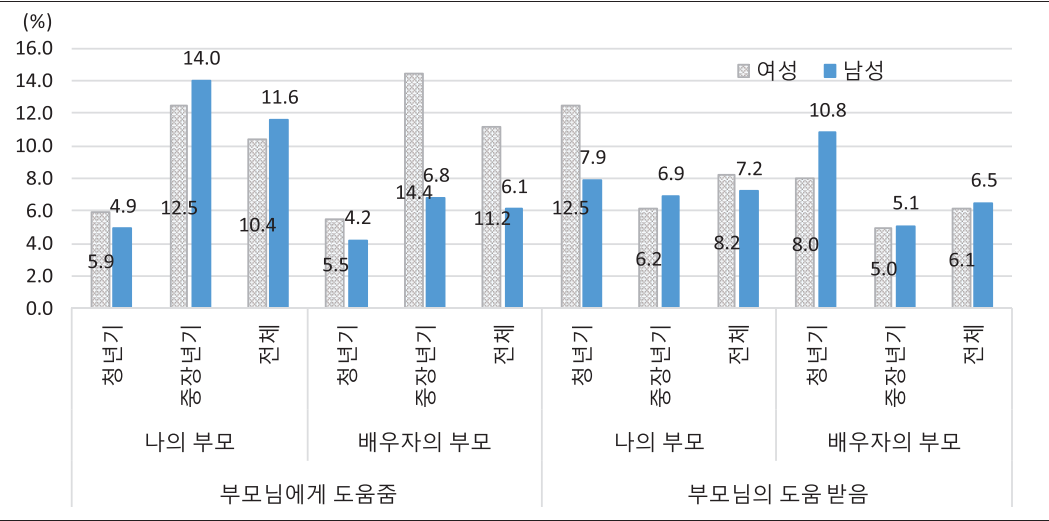
주 : 만 25세 이상만 응답. 해당없음 제외.

○ 부모와 집안일 관련 도움을 주고받는 경향은 가족원 돌봄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

- 부모에게 집안일 관련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청년기의 경우 나의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에 있어서 여성이 도움을 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중장년기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는 중장년기 여성들이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원 돌봄과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았음.
- 반면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나의 부모는 청년기 여성, 배우자의 부모는 청년기 남성이 가장 높았음. 이 역시 노인들의 손자녀 양육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과이며, 더불어 미혼(비혼) 자녀의 독립 유예와도 관련이 있다 하겠음. 더불어 노

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들보다는 딸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음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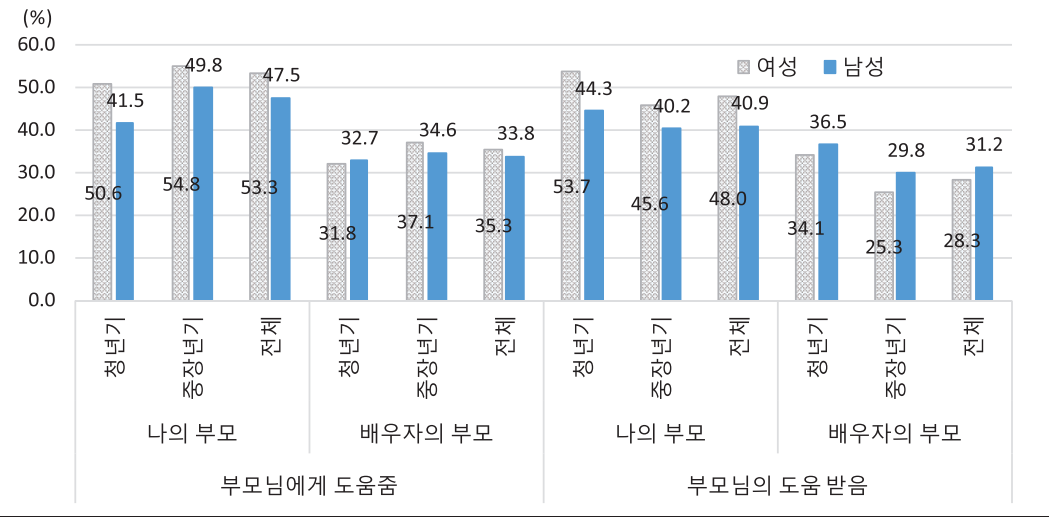
[그림 4]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집안일(유배우자)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만 응답. 해당없음 제외.

○ 정서적 지원은 나의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정서적 지원(유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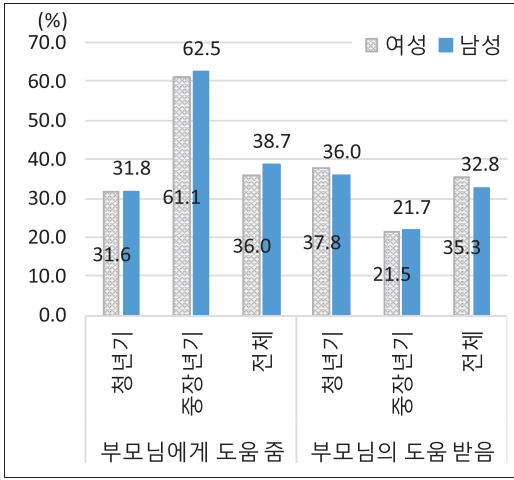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만 응답. 해당없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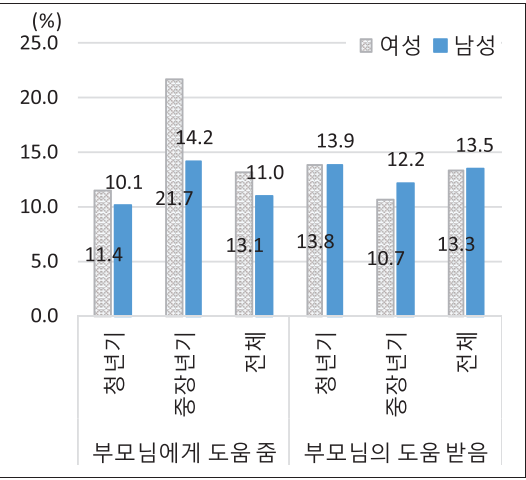
-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는 여성에게는 남편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기대하는 전통적 가족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 가능함.
- 여성들이 부모와 보다 적극적인 정서적 지원을 교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부모돌봄 역할과도 밀접히 연결될 수 있음.

○ 미혼(비혼)의 경우 유배우자에 비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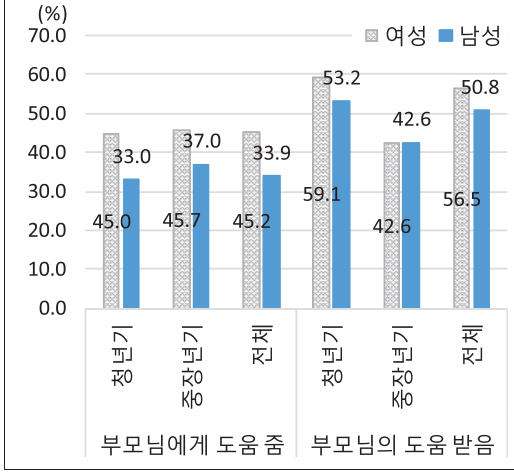
[그림 6]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경제적 지원(미혼/비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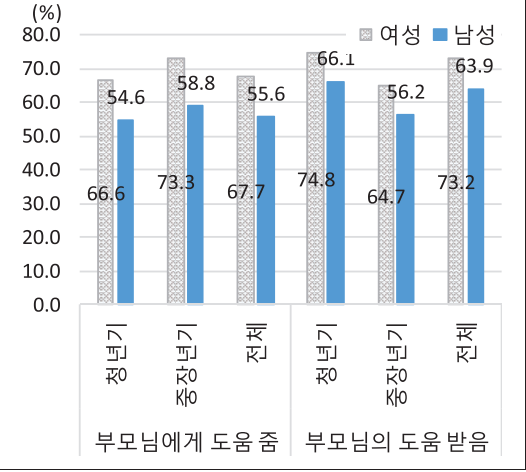
[그림 7]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가족원 돌봄(미혼/비혼)



[그림 8]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집안일(미혼/비혼)



[그림 9] 부모-성인 자녀 간 도움 교환: 정서적 지원(미혼/비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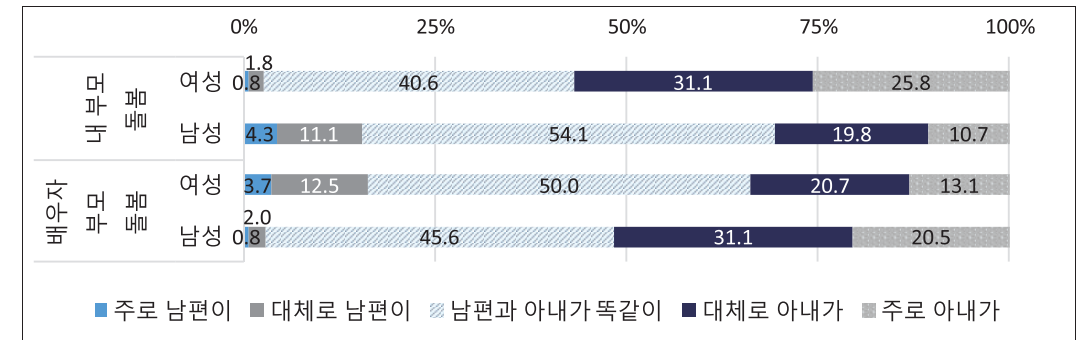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만 응답. 해당없음 제외.

- 미혼(비혼)의 경우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모님과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경향이 있음.
 -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 미혼(비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집안일, 가족원 돌봄, 정서적 지원을 부모에게 뚜렷하게 많이 제공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청년과 중장년 모두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더 받고 있었음.
- 현대사회에서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음. 특히 독립의 시기가 유예되면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도 더 많아짐.
- 청년기까지는 부모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중장년기에는 부모들의 대부분이 노년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도움 제공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을 가장 주되게 담당하는 사람은 중장년기 여성이며, 미혼(비혼)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함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953,511명) 수발가족 중 72.2%(688,850명)가 여성이었으며 자녀 중에는 84.9%가 딸 또는 며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부장제의 약화로 며느리의 시부모 돌봄에 대한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는데 반해, 미혼(비혼) 딸의 부모돌봄은 증가하고 있음(석재은, 2020).
 - 경우에 따라 한사람이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거나 한명의 노년 부모를 자녀 여럿이 돌아가면 보는 것과 같은 돌봄의 중층 상황도 나타나고 있음(문현아·차승은, 2020).

나. 부부간 부모 돌봄 역할분담

- [그림 10]과 같이 나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돌봄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들은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는 아내의 부모에 대해서보다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0]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관련 주도적 의사결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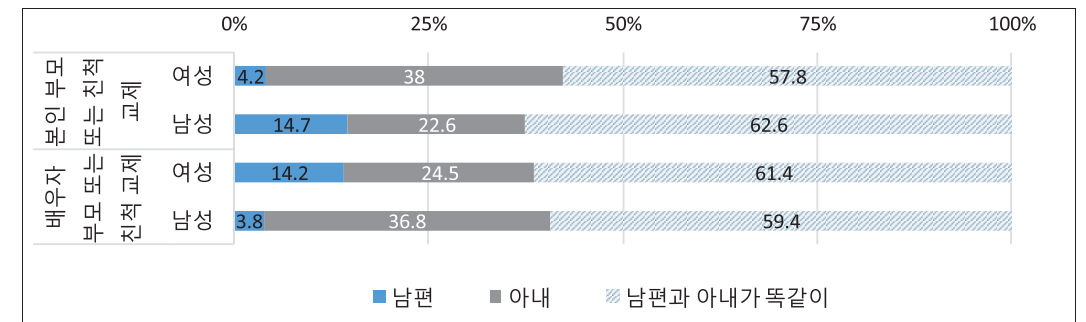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 응답자만 포함. 해당없음 제외.

- [그림 11]에서 보듯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역할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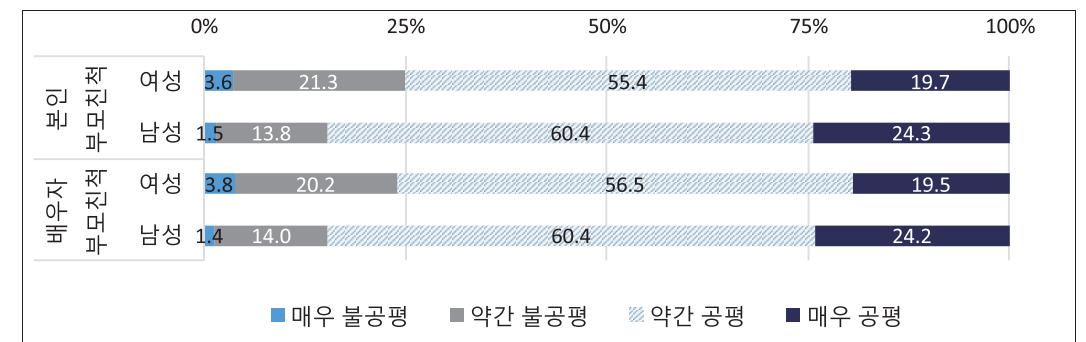
[그림 11] 부모 및 친척들 간 교제 관련 가사수행 주체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 응답자만 포함. 해당없음 제외.

[그림 12] 부모 및 친척들 간 교제 관련 배우자와의 공평한 가사분담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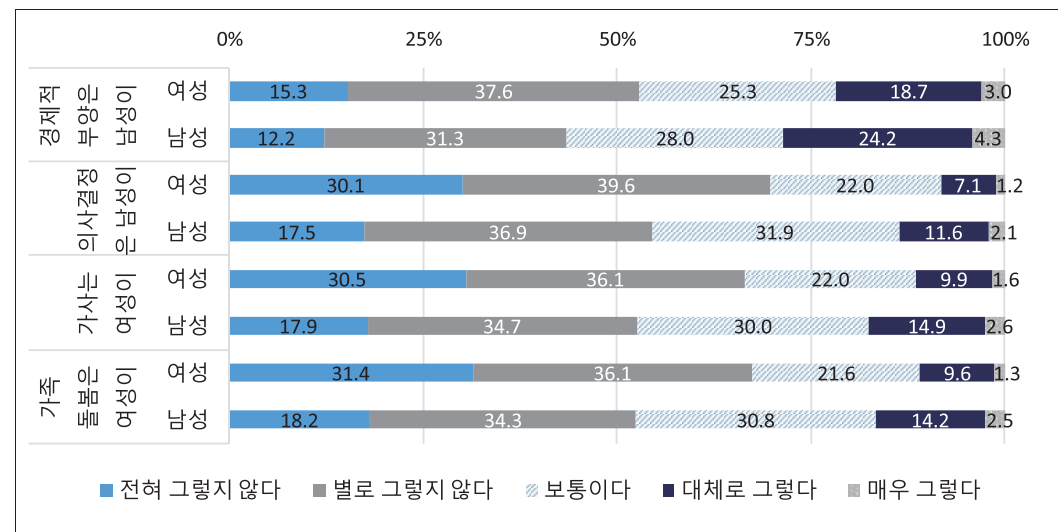
주 : 만 25세 이상 응답자만 포함. 해당없음 제외.

3. 가족 내 부모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가족가치는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 가치관이 존재하며, 노인돌봄에 있어서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과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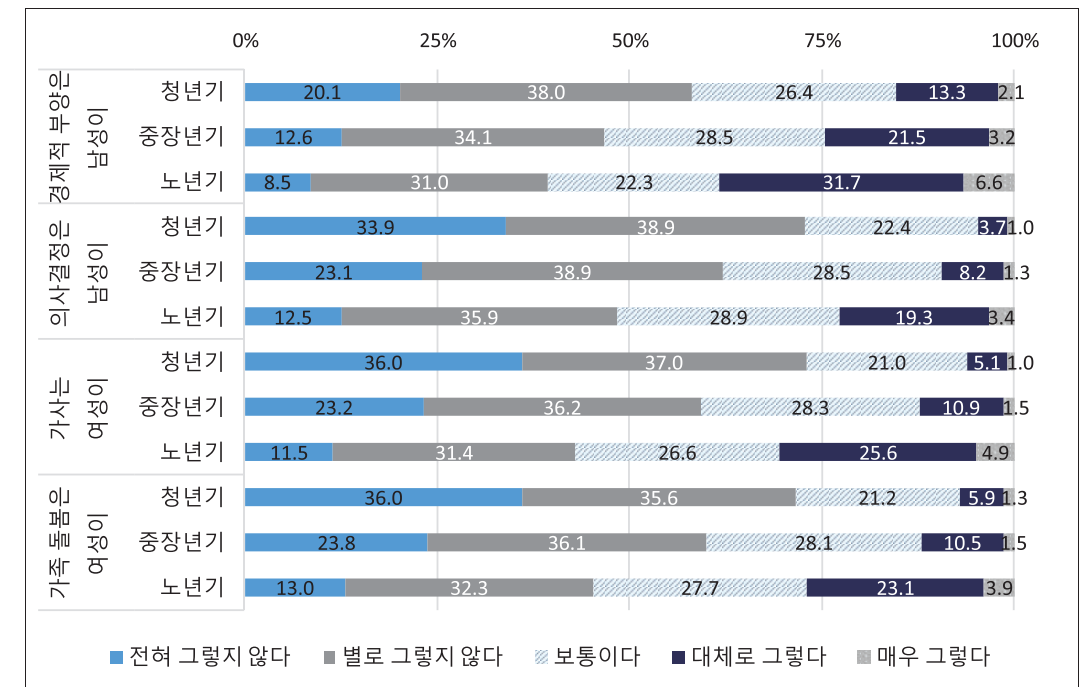
- 우리사회는 여전히 가족 내 역할분업과 관련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존재함.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경제적 부양자와 의사결정자로서의 남성과 가사와 돌봄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음.
-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은 더 강하게 나타남. 여성들은 가사 및 가족돌봄에 대한 역할이 여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돌봄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노부모들의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이 노인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

[그림 13] 가족생활 관련 성평등 의식



자료 : 가족실태조사(2020).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 응답자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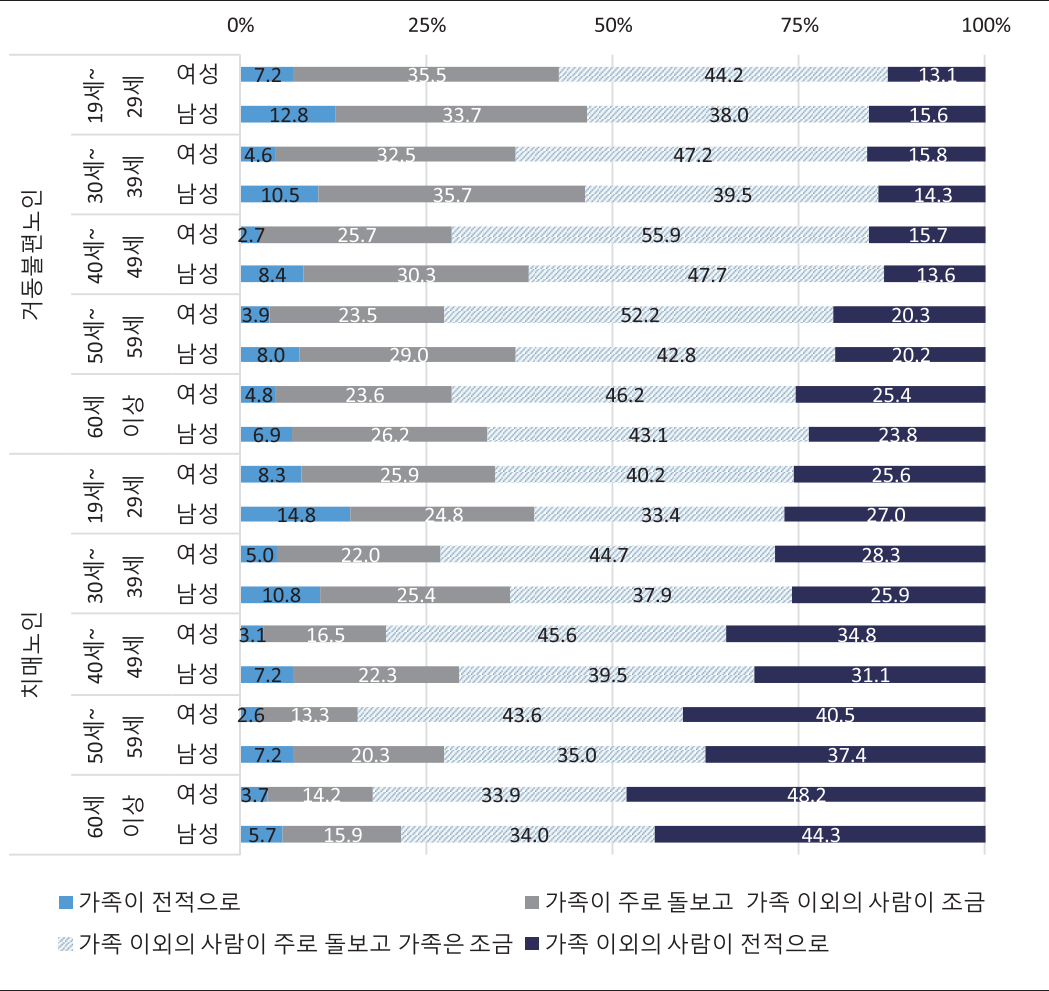
[그림 14]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관련 성평등 의식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 : 만 25세 이상 응답자만 포함.

- [그림 15]와 같이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는 노인돌봄책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 있음. 누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치매노인을 돌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50대 여성에게서 가족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가 노인돌봄의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가족 이외의 사람이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보고 가족은 조금 + 가족 이외의 사람이 전적으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여성들이 더 많이 응답함.

[그림 15] 성별*연령별 노인돌봄 책임분배(돌보는 사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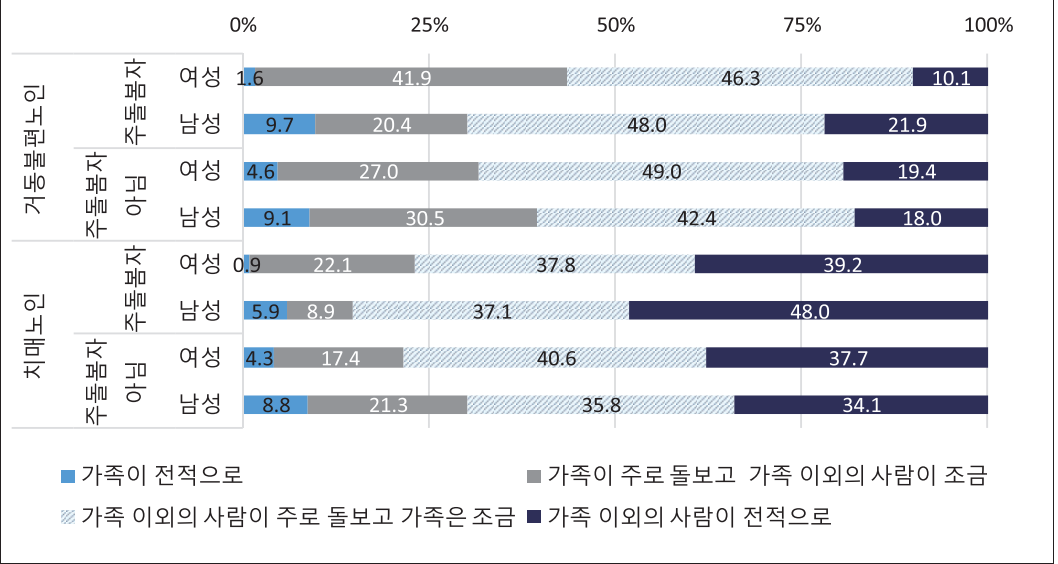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양성평등실태조사」.
주 : 만 19세 이상만 응답.

○ [그림 16]은 주돌봄자 여부별 노인돌봄에 대한 견해임. 주돌봄자 여부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돌봄의 경우 주돌봄자 여성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1.6%)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10.1%)은 가장 적었으나, 가족이 주로 돌보고 가족이외의 사람이 조금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가장 많았음(41.9%). 거동이 불편한 부모의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돌봄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
- 반면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는 남성들이 가족이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서 성별 차이가 있었음.

○ 치매 노인의 경우는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거동불편 노인에 비해 높았음. 특히 주돌봄자 남성들은 가족이외의 사람이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여성의 경우는 주돌봄자인 경우 가족이 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보다 높았는데, 이는 부모돌봄에 대한 당위성의 인식과 이로 인한 부담을 모두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림 16] 성별*주돌봄자여부별 노인돌봄 책임분배(돌보는 사람)에 대한 견해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양성평등실태조사」.
주 : 만 19세 이상만 응답.

○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문현아·차승은(2020)은 누가 어디서 노인을 돌볼 것인가의 문제와 세대간 의사소통 문제는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전통적 가족 규범의 변화와 성평등 의식 확산, 공적 돌봄 서비스의 시작 및 확대 등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이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그러나 노인돌봄은 여전히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나타날 뿐 아니라, 노인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대안이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4.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적 과제

“국가차원의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 확충 뿐 아니라, 여전히 노인돌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내 돌봄 및 돌보는 사람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발굴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가족실태조사」 및 「양성평등실태조사」 분석 결과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노부모 돌봄 및 지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미혼(비혼)의 경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
- 가족 내 돌봄은 노인 또는 예비 노인인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부모의 연령 증가와 함께 자녀 연령이 중장년기로 접어들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
- 특히 노인이 노환이나 치매 등으로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적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실은 돌봄의 사회화 노력과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역할은 가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 돌봄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적 영역의 돌봄인프라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노인돌봄은 여전히 사적 영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돌봄 제도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하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 자격조건과 돌봄서비스가 양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이용재·박창우, 2022). 그 결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여전히 노인돌봄은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고 많은 경우 여성들이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청년기에는 자녀돌봄이, 중장년기 이후는 노인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주어지면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
 - 여성들은 여성이 꼭 돌봄을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부모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남성돌봄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부장적 가족가치의 약화에 따라 며느리의 시부모 돌봄에 대한 당위성 또한 약화되고 있지만 돌봄에 대한 젠더규범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

- 경기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2022년 12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7%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인구(전체 노인인구의 21.5%)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2021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19%인 615,754 가구,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23.6%인 690,817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여 경기도는 가족 내 노인돌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지역임.

- 국가차원의 노인돌봄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노인돌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젠더를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노인돌봄 제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발굴 노력이 필요함.

- 현재의 노인돌봄 정책은 주로 정책대상자인 노인들에 집중하며, 돌봄제공자의 소진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음.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왔고, 노인돌봄제공자들의 자조 및 회복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으나 피상적인 제안에만 머무르고 있음.

- 정부는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⁴⁾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나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하여 돌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와(성인돌봄의 필요도는 18.8%이나 미충족률은 90.4%, 2015년 기준) 여성에게 특히 가혹한 가족간병(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 2016년 기준)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⁵⁾을 추진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8).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요소로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돌봄대상 노인의 가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임.

4)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21).

5)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보건복지부, 2020)

- 재가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전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돌봄제공 가족들에 대한 케어 또한 필요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진단을 기반으로 핵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권고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0). 이에 경기도는 노인들의 돌봄 수요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여전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가족 내 돌봄제공자의 정책욕구를 고려하여 돌봄제공자가 노인을 돌보면서도 일-생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돌봄 제공자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발굴을 위하여 돌봄제공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노인돌봄의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
- 돌봄을 제공하는 성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 등은 부모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도움 제공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임. 따라서 노인돌봄 제공자의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 돌봄 대상, 동거 여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노인돌봄의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더불어 노인돌봄을 포함하는 돌봄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젠더 규범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참고문헌

노경혜(2020). 「경기도민의 가족특성별 시간사용: 미취학자녀 유무 및 맞벌이 여부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문현아·차승은. (2020).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누가 돌보고 어디에서 돌봐야 하는가. 「가족과 문화」, 32(1), 102-131.

신영민·김희강. (2019). 돌봄 관점에서 본 이중빈곤연구의 의의와 한계. 「한국사회정책」, 26(1), 35-59.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이용재·박창우. (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0, 205-231.

보건복지부.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https://www.mohw.go.kr/>).

_____.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https://www.mohw.go.kr/>).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https://mdis.kostat.go.kr/>).

_____. (2021). 「양성평등실태조사」 (<https://kosis.kr/>).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https://kosis.kr/>).

_____. (2021). 「인구총조사」 (<https://kosis.kr/>).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

